



강 숙 자  
푸른조경 대표

## 푸른 농장의 발자취

지금은 농장이지만 1960년대 말 당시에는 대덕군 산내면에 위치한 그저 아릅드리 오리나무만 빼곡한 숲이었다. 남편의 뜻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육우 자금을 융자받아 축산을 하려다 대전시 중심가에서 푸른화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나는 다시 남편과 협의해서 새로 산의 별채 허가를 맡아 잡목을 베어버리고 튜립나무, 단풍나무, 백자작나무, 조형향나무, 뽕나무, 전나무, 잣나무, 자산홍 등 몇가지 안되는 수종의 조경수 묘목을 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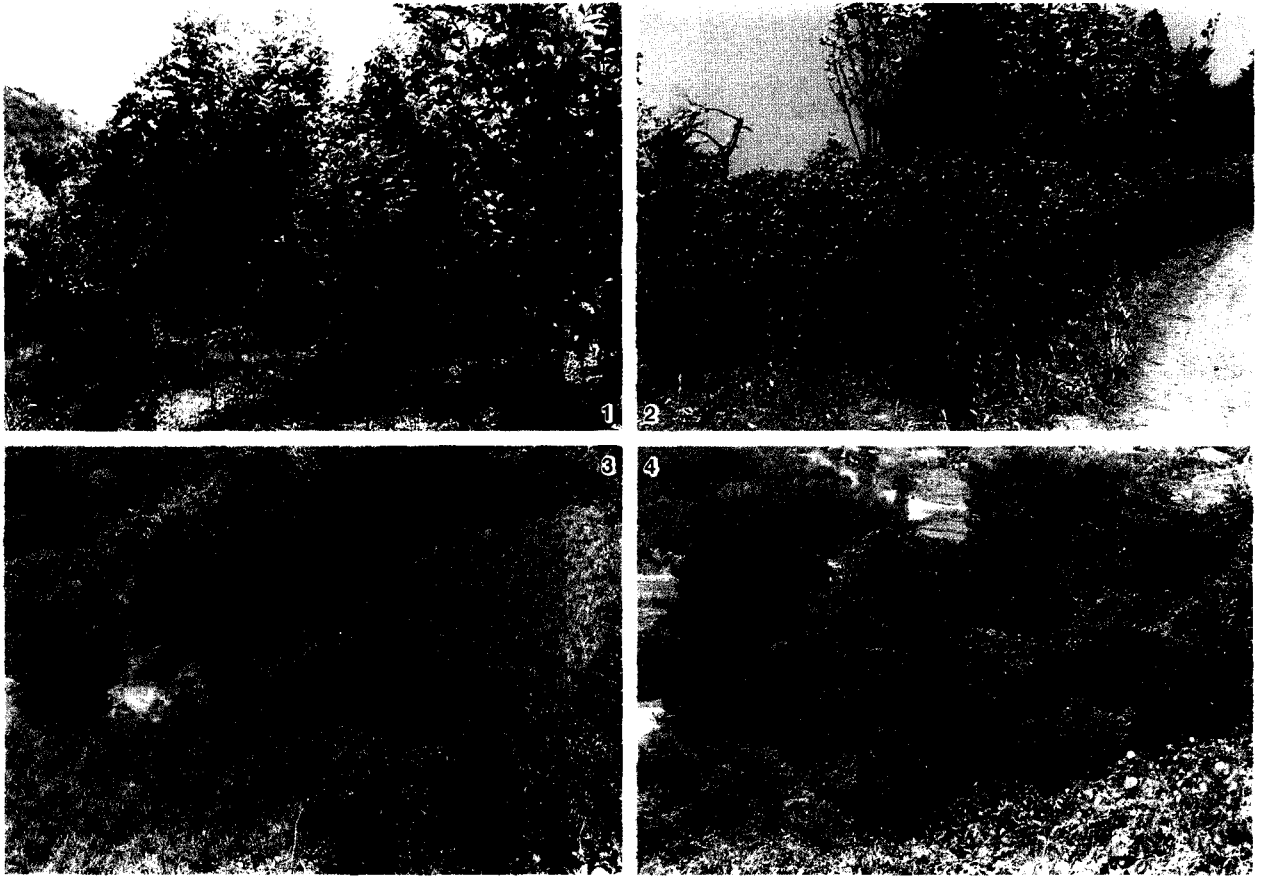
유묘는 한두해 지나면서 조

경수로 변모했고, 지나던 사람들조차 그림같은 조경수의 아름다움에 취해 사진을 찍으러 몰릴 정도였다. 아마 당시로선 시민들이 조경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때라 생소하기도 해서 소문도 많이 해주었다.

덕분에 이는 분의 소개로 철



▲강숙자 푸른조경 대표



1. 목련 2. 길가에 늘어서 화살나무 3. 스트로브 잣나무 묘목 4. 단풍나무

도청에서 발주하는 아산 도고  
 역의 측백나무 식재공사를 시  
 공하였다. 비록 적은 액수의 공  
 사였으나 이를 시작으로 나는  
 조경공사와의 인연을 맺게 되  
 었다. 생화와 관엽화분을 소매  
 하던 나에게서 무엇인가 꿈이  
 보이는 일이었다. 그것이 계기  
 가 돼서 나는 대전 철도청과  
 충남 교육청의 작은 공사에 우  
 리 농장의 수목을 납품하기 시  
 작했고, 1990년에는 농장에 임  
 도 2.5km를 났다. 그때는 약 6

만평의 포지에 수목이 꽉차 제  
 법 농장이라 불리워졌다. 수종  
 도 수십종으로 늘고 수목도 근  
 경 10cm가 넘는 것이 많다보  
 니 농장 관리에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부득이 관리인  
 5명을 채용해 비료시비, 전지작  
 업, 병충해 방제 등 수목관리에  
 전력을 쏟았지만, 자라서 성목  
 이된 나무의 판로 문제에 균형  
 을 맞추는 운영은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사업이란 너무 광  
 범하게 벌리면 안된다는 신념

을 갖고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남의 땅을 임대해서 농장을 확  
 장, 수목을 이식할 수밖에 없었  
 다.

89년 조경식재업으로 푸른조  
 경을 설립하였으며 94년에 조  
 경시설물면허를 취득한 나는  
 95년에는 남산소나무식재공사  
 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98년에  
 는 서해안고속도로 공사에 참  
 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99년 현재 대전직할시 소재



▲회화나무

의 괴곡동, 산성동, 금산군 복수면 등 포지만도 7개 곳에 이르며 그 수종만도 약 30종이 넘고 약 37,000주에 이르는 수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고려영산홍, 등근소나무, 마가목 등은 대표할만한 조경수에 속한다.

하지만 인력부족과 노동연령의 노후화로 농장관리시 인공비료를 쓰다 보니 토질이 산화되어 요즘은 퇴비를 되도록 많이 쓰고 화학제초제도 되도록 줄이고 제조작업으로 전환했다. 아무래도 토심이 좋지 않아서 뿌리가 약해지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이다.

또 농장을 운영하다보니 어떤 수종이 장래수종으로 유망한가의 명석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어떤 수종의 수요가 늘면 곧 생산자들이 많아져서

과잉 공급 등을 초래하고 시장 불균형현상이 생겨 항시 수종 선택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직도 생산자의 어려움으로 남는다. 97년에는 우리 협회와 결연한 일본 구마모토현에 충남 대전지부 회원들이 구마모토를 비롯 후지오카와 농협수목공판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그 곳에도 비싼 노동력과 수요공급의 불균형, 과잉생산, 업자간의 과다경쟁 등의 고민은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앞으로는 도시의 확장 국토 개발에 맞추어 필요한 수요공급을 계상해서 정부와 계약 재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큰 지방공사에 발주처측의 협력기간 나눠먹기식의 참여를 막기위해 지역사회생산자

들이 납품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제도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우리 조경인들의 과제라고 본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많은 조경수목들이 육종재배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장미꽃중에도 수출때 외국 개발 품목의 장미는 로열티를 준다고 들었다. 개발과 함께 우리는

우리나라 고유수종의 보존과 세계로의 보급은 매우 필요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피라칸사스의 열매가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 짙레꽃처럼 아무데서나 볼 수 있지만 한국에 오면 좋은 상품이 되듯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조경수목도 국경을 넘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등장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녹음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요, 답답하고 우울한 도시로 생활을 답답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바램이 있다면 좀더 우수한 조경수목을 생산하여 경영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산책을 겸비한 자연친화적인 우리농장에 삶에 지친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을 만들어 그들에게 봉사하며 돕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램이며 큰 꿈으로 남아 있다. **조경수**